

## 철학사입문코스Ⅳ

### 제17강 역사(History)의 시대 1

#### 제17강 1교시

#### ◆ 역사철학의 등장

근대정치/사회사상의 정점은 역사철학이다. 이러한 역사는 소문자 역사가 아니라 대문자 역사이다. 근대 특유의 뉘앙스가 들어간 한에서의 역사.

실증과학으로서의 역사는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며 시대를 맞추는 등의 작업을 하지만 역사철학은 역사를 어떻게 철학적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것은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존재론적인 물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식론적인 물음이기도 하다.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역사에 접근하는 방법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둘러싼 **역사철학(philosophy of history)**은 근대에 이르러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된다.

**역사를 쓴다는 것은 거대 권력의 출현을 함축한다.**

→ 선사시대로부터 역사시대로 넘어간다는 것은 거대한 권력의 출현을 의미한다. 거대 권력의 출현은 곧 국가의 탄생을 의미하고 인간이 순수하게 자연적 질서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질서에 따라 산다는 것을 함축한다.

역사시대에는 시간의 분절 기준이 자연에 있지 않고 왕에게 있다. 예) 광종 4년, 태종 2년, 세종 13년

왕이 바뀌면 시간이 다시 시작된다. → 전통적인 역사에서는 누적된 시간이 없다.

원래 mythos와 history(이야기)는 같은 말이었다.

역사는 권력의 일이었다.

→ 오늘날 우리는 역사를 학문의 문제로 보지만 **역사는 근본적으로 권력의 문제**이다.

또 대부분의 역사서들은 자민족 중심의 역사서들이다.(『구약』 『사기』 등)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 등은 예외에 속한다. 역사학이 학문이 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다.

#### ▲ 발전사관의 등장

근대에 들어 발전사관이 등장했다.

→ 역사를 발전development하는 것으로 본다.

**고중세의 대부분의 역사철학들은 퇴행론이거나 순환론이었다.**

⇒ 이상향(아틀란티스, 요순시절, 에덴동산 등)으로부터의 퇴락(頹落), 또는 순환론이 대세였다. 동중서는 오행설을 근거로 역사 순환론을 이야기했다. 실제 역사가 순환적이었으나 그 내용은 이와 달리 사회경제사적 이유 때문이었다.

**서구 근대에 들어와 역사에 대한 ‘발전사관’이 등장했다.** ‘신구(新舊) 논쟁’은 이런 변화의 한 징후이다. 근대 문명의 발달에 따라 생겨난 서구인들의 자긍심은 역사의 발전사관으로 표현되었다. 이것은 중국 문명에 대한 고전 시대의 평가와 19세기의 평가의 차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계몽사상가들은 대체적으로 세계의 다원성을 인정했고, 근대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배타적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점차 목적론적이고 유럽중심적인 생각이 전경을 차지하기에 이르렀고 이런 경향은 헤겔에게서 정점에 달한다.

#### ▲ 헤겔의 역사철학

**헤겔은 역사의 법칙성을 강조한다.**

→ 역사는 개개인의 힘이나 우연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설사 바뀐다해도 미약한 변화만 가능하고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역사의 거대하고 필연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이다.

⇒ 이 점에서 **계몽사상의 탈역사성을 비판**한다. 인간의 이상은 역사의 법칙성에 합치할 때에만 실현된다.

**역사의 주체는 절대자(das Absolute)이다.**

## 제17강 2교시

### ◆ 헤겔의 역사철학

#### 역사는 절대자의 자기실현이다.

→ 실현이라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잠재태와 현실태를 함축한다. 헤겔의 철학은 스피노자의 철학에 비해 목적론적이기 때문에 보다 시간적이고 역사적이다.

이 절대자는 스피노자의 신에 가깝지만 훨씬 더 범신론적이다. 헤겔은 악무한(유한과 분리되어 있는 무한)과 진무한(유한과 무한이 합치되어 있는 무한)을 구별함으로써 스피노자적인 내재적 신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절대자는 ‘구체적 보편’**이다.

⇒ 셸링은 절대자를 이야기했지만 절대자는 유한한 세계의 변화와 관계없이 홀로 자족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헤겔의 비판대상이 된다.

구체적 보편은 추상적 보편의 반대말이다.

- 1) 추상적 보편→ 유한자들, 구체적인 것들과 괴리되어 있는 보편
- 2) 구체적 보편→ 유한자들을 매개해서 성립하는 보편

절대자의 자기실현은 곧 자유의 현실화이다. **역사란 자유의 실현의 과정**이다.

⇒ 독일고전문화의 성격은 이상주의이다. 독일 이상주의를 근거 짓는 개념은 자유이다.

헤겔은 ‘동양’의 고대국가에서는 한 사람만이 자유로웠고, 그리스의 폴리스에서는 일부 사람들만이 자유로웠으며, 게르만 국가들에 이르러 비로소 인간 자체가 자유라는 의식이 싹트게 된다고 보았다.

**유럽중심주의**→ 헤겔은 유럽이야말로 자유가 실현된 곳이고 그리스는 망아였으며 동양은 후진지역이고 정체되어 있다고 본다.

#### 자유가 온전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요청된다.

→ 인간 혼자서는 위대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없고 오로지 신성하고 위대한 공동체의 일원이 됨으로써만 위대해질 수 있다.

예) 그리스의 폴리스

가족, 시민사회의 한계를 넘어 **국가이성(國家理性)**이 요청된다.

→ 헤겔에게 있어 국가는 민족이자 동시에 국가이다.

헤겔에게 개개인은 절대자의 자기실현의 도구들일 뿐이다. 이것을 헤겔은 ‘**이성의 간지(奸智)(die List der Vernunft)**’라 부른다.

절대자의 운동 방식은 변증법(die Dialektik)이다.

이것은 존재론에서는 모순의 지양(Aufheben)으로서, 인식론에서는 절대지(絕對知)로의 여정으로서, 인간존재론에서는 즉자, 대자, 즉자-대자의 운동으로서 이해된다. 헤겔은 이런 사유를 미학을 비롯해 다른 영역들에게까지 확대적용하고 있다.

⇒ 존재론으로는 정반합(正反合)의 과정. 인식론적으로는 오성지→ 이성지→ 절대지로 향하는 과정. 한 인간의 성숙으로 말하면 즉자. 대자. 즉자-대자의 운동이 된다.

#### ▶ 참고자료

변증법[辨證法, dialectic]

변증법이란 것을 인식뿐만 아니라 존재에 관한 논리로 생각한 것은 G.W.F.헤겔이었다. 헤겔은 인식이나 사물은 정(正)·반(反)·합(合)(정립·반정립·종합, 또는 卽自·對自·즉자 겸 대자라고도 한다)의 3단계를 거쳐서 전개된다고 생각하였으며 이 3단계적 전개를 변증법이라고 생각하였다.

정(正)의 단계란 그 자신 속에 실은 암암리에 모순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순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단계이며, 반(反)의 단계란 그 모순이 자각되어 밖으로 드러나는 단계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모순에 부딪침으로써 제3의 합(合)의 단계로 전개해 나간다.

이 합의 단계는 정과 반이 종합 통일된 단계이며, 여기서는 정과 반에서 볼 수 있었던 두 개의 규정이 함께 부정되면서 또한 함께 살아나서 통일된다. 즉, 아우프헤벤(aufheben: 止揚 또는 揚棄)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존재에 관해서도 변증법적 전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존재 그 자체에 모순이 실재한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변증법은 모순을 부정하는 특별한 논리라고 생각된다. 오늘날 변증법은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K. 마르크스, F. 엥겔스의 유물변증법(唯物辨證法)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인식론으로 보자면 진리 = 전체의 사유구도

즉자→ 他에 부딪혀보지 않은 의식

대자→ 타에 부딪힌 의식

즉자-대자→ 앞의 두 요소가 종합된 것, 즉 ‘완전무결한 전체적·절대적인 것’

⇒ 헤겔의 이러한 사상은 근대 이상주의의 가장 전형적이고 이상적인 시스템이다.

역사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과 그 종착점으로서의 유럽의 설정은 큰 영향을 행사한다.